

중앙운영위원회 속기록

2012년 6월 3일 (일) 오후 7시 30분~ 오후 11시 50분

총학생회 활동보고

총 :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를 위한 사전 설문 조사 진행중(온라인,오프라인)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새로운 일정 계획 (논의안건)

조우리 전 총학생회장과 한대련 탈퇴에 대한 논의, kubs 토론회에서 찬성 반대뿐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초빙 (사범대 의견), 토론회 일정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수정

단대별 보고안건

간호대: 농활 자체적으로 준비 (강릉)

국제학부 : 농활 자체적으로 준비, 면담(충북 음성), 강연회 준비 중

동연: 민주광장에서 금연 캠페인, 흥익대 미화노조 참가

디조:

문대: 0학점 강의 진행, 다음주에 종감, 김준엽 기념 사업 준비중, 세미나 진행. 빈활과 농활 준비중 다음주 김준혁 기념사업 진행. 6월 8일 학생들 중심의 포럼과 낭송대회 강연 진행. 문과대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단위에서도 관심있으시면 참여부탁

미디어 : 자체적으로 농활 준비중, 25일부터 한주간 진행 예정. 장소 컨택중. 미디어관 여학생 휴게실 구상중. 학우들 의견을 듣고 있음

법대: 해송법학 도서관 24시간 개방 준비. 법학교육과 관련된 토론회 참석 예정

사범대 : 지난 금요일 화장실 벽보 비치. 학생회 세미나 준비 중. 시험기간 강의실 개방과 간식 사업 준비 중.

생명대: 간식행사 준비 중. 워크샵 관련하여 학장 면담.

의대: 6/7 강연회 진행.

이과대: 단운위 소집 실패. 다음주 진행 예정. 한대련 투표에 관해 이과대 회장님 의견 전달 (사무국장 대리 참석 중)

사전 : 자유전공학부 12학번 집행부 모집중

정경대: 이만우 교수 수업 종강. 한학기 수업의 32%를 휴강. 당선후 열심히 강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림. 교수님께 연락했으나 학생회장이 뭐길래 자꾸 간섭하냐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연락 준비 중. 강사가 가르치는 전공강의를 늘려서 대형강의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중.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통대 : 저번 일요일 교내 체육대회로 인해 중운위 불참. 서울권 컴퓨터 학과 관련 회장님들과 연락중

국제학부 회장 : 교내 에어컨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

디자인 조형학부 : 전면 유리인 건물의 온도가 너무 높음

사범대 : 몇몇 건물이 온도가 안떨어짐. 다같이 냉방을 진행하느라 조절하기 힘들어 한다는 학교 답변

국제학부 : 다시한번 학교에 연락 부탁

논의안건

아이스하키

지난주 총학실에 아이스하키 ob 모임에서 방문. 폭행사건 문제뿐 아니라 총장이 비호하는 상황 발견, 총장의 차가 김광한 관장의 차라고 주장. 5개부 오비 회장들이 이기수 총장 시절부터 김광한 관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이러한 이유임. 특례입학에 대해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아이스링크 시설이 47억을 들여 아이스하키 선배들이 지었으나 재단이 가져가서 수익을 얻고 있고, 아이스링크장 앞 기부자 비석을 누군가가 깨부셨음. 링크장 내 시설의 수입이 관장에게로 들어가고 있음. 운동부 감독을 자신의 편으로 세워서 조종하고 있음. 감독시절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로 논란이 있었음. 07년도 감독당시 고연전 보이콧을 진행. 개인의 힘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호해 주는 세력이 있는 듯 함. 현재 코치가 폭로를 했는데 관장이 수익사업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었으니 유소년 팀을 코치에게 맡기고 코치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고 있음. 학부모들이 용돈과 선물을 제공하면 운동을 시키고 조금 지난후 다시 왕따를 시킴. 현재 감독은 러시아인 관장이 조종하며 선수들 편애가 심함. 문제를 제기 할 시 한국말을 못한다고 부정함. 오비 모임에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막고있는중. 그래서 총학에 방문. ob에서 성명서 발표. 카페 주소도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람. 3월 정대회장님이 제시한 자료의 원문을 확인. 아이스링크 중앙광장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학교로 들어와야하나 재단이 배를 불리고 있음. 교우회관의 경우 교우회관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입, 예식장들의 수입을 교우회에서 가져가고 있고 학교로 들어오지 않음. 논의 안건에 넣지 않는 이유는 조사중이기 때문.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면 좋겠고, 다음 중운위에 아이스하키 오비를 초청하여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명대 : 총학의 입장은?

총: 체육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믿지 못하겠음. 현재 조사중이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

사범대 : 성명서는 어떻게 되었나?

총 : 오비분들과 대화후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잠시 미뤘음
비석을 없앤 곳에 비석을 없앤 사람을 찾는 다는 플랑을 걸었으나 누군가가 제거함. 플랑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보니 관장이 시켜서 코치가 제거 했음. 비석이 제거한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아이스링크가 재단의 소속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함.

미디어 :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는?

총 : 학교에서 어용단체를 만들어 넘겼다고 함
아이스하키는 이정도로 하고 한대련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

한대련 탈퇴논의

교내 여론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을 새롭게 조정하였음. 홍보기간엔 한대련 탈퇴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한대련이 존속해야한다면 존속해야하는 이유등 여러 의견들이 자유롭게 홍보 되었으면 좋겠다. 금요일 토론회를 생방으로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만약 정책투표를 진행한다면, 그 다음주로 진행하기로 함. 원래 계획은 내일부터 바로 진행했으면 했으나 너무 급작스럽다는 의견 때문에 홍보기간을 늘림.

미디어 : 정책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나?

총 : 07년도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에서 출교자관련 정책투표를 진행하였으나 휴학생과의 명부가 섞여서 무산된 적이 있었음.

이번에 토론회를 한다면 제안 드릴 사람이 사범대 회장, 정경대 회장님, 조우리 전 회장님 세분이다.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신가. 사범대 회장님께서도 찬반보다는 다른 이야기 하실 예정라 찬반을 구분하다기 보다는 한대련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범대 :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단대내에서 총학이 탈퇴를 하자는 입장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계셨다. 작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퇴를 지지하기엔 연대를 할 수 있는 곳이 한대련 밖에 없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다.

정경대 : 토론회 구성이 총학 정책국장님 아닌가? 만약 토론회에 나온다면 총학생회장님이 직접 나오는게 아닌가?

총 :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나 모양새가 맞는지 모르겠다.

법대 : 정책투표는 총학생회장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나?

총 : 가능하나 긴급을 요한 부분이 악용된 것이 많아서 중운위 연서로 진행하겠다.

문 : 새내기나 복학생들이 한대련 조직에 대해서와 작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음주에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은가, 논쟁없는 투표와 10%의 투표가 학우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 비록 일주일 미뤄서 홍보기간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학우들에게 전달이 될지 걱정. 한대련을 탈퇴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거나 탈퇴해야만 하는 총학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통진당 사태의 정세속에서 제대로 된 논쟁이 될 것인가 걱정 됨. 물론 이러한 정세 속에서도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더 의미있는 논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할 듯.

총 : 한대련에 대한 논쟁은 몇 년간 진행되어왔음. 09년도에는 학생들이 한대련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가입이 되었음. 10년도엔 한대련탈퇴에 대한 정책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켜지지 않았음. 11년도에는 중운위와 총학과의 마찰이 심해졌음. 따라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하기엔 많은 논쟁이 오갔다고 생각함. 학우들이 한대련에 대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탈퇴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모르는 상위단체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한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입되어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 정책투표는 한대련 재심의를 묻는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전학대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완벽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예를들어 저번 전학대회에서 미화노조 시간강사 문제가 전학대회에서 폐기 되었으나 많은 학생들의 반박이 있었다. 전학대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정책투표로 학우들의 의견을 묻고난 이후에 전학대회를 진행하고 싶다.

국제학부 : 총투표에서 정책투표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총학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총 :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 명의로 대자보를 붙이겠다. 공약을 내세웠을 당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에서 총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정책투표와 총투표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겠다.

정경대 : 정책투표후 전학대회가 10% 조금 넘는 투표율이 전학대회 대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약은 제시한 사람의 의견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데 공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그 방법으로 총투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총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경우 학생들이 한대련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한대련의 단점을 설명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잘못된 설문조사와 다르게 없다고 생각한다.

총 : 설문조사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이므로,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공약의 경우 한대련 탈퇴가 핵심이지 총투표가 핵심이 아니다.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겠다.

정경대 : 전학대회에서 총투표로 인준을 받았는데 정책투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 : 이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

문과대: 한대련 탈퇴가 탈퇴를 위한 투표가 아니라 건전한 학생사회를 위한 장을 위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에서 정책투표를 선택한 사항이 한대련 탈퇴를 관철한다고 느낌이 든다.

공대: 한대련을 모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대련을 탈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새내기나 복학생들은 올해 한대련 활동을 하지 않아서 한대련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때문에 한대련

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데 왜 탈퇴를 해야하는가 (올해 한대련 비활동단위가되면서 활동을 겪어보지 못하심으로써 한대련을 아예모를수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대련을 모르고 관심이 없는것이 탈퇴근거가되기는 힘들지않겠냐는 것)

총 :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탈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예를들어 동아리 활동을 안하는데 왜 동아리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부재자투표의 경우 총학에서 진행했으나 한대련이 진행했다고 기사가 왜곡 보도가 되었다.

사범대 :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에대한 입장은 어느정도 공감하나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총 : 학우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잃는 것도 많겠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싶다.

정경대 : 새내기들의 경우 대부분 한대련이란 단체에 대해 모르는데 얼마나 투표를 할지 모르겠고 얼마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총 : 잠시 한대련 집행위원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다.

한대련 : 실제로 의구심은 든다. 한대련 활동을 하지 않는데 가입되어있다는 것에 학우들의 논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학우들의 논란의 대상은 한대련에 가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의 활동에 있다고 본다. 가입단위에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학생회장님들, 학생사회 상층의 논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대련 탈퇴 논란은 실제로 학생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는 학우들이다라고 생각한다.

생명대 : 작년에 고려대에서 새내기 진행한 점에 대해 중운위의 의견을 몇 번이나 무시하고 진행된 점에 알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한대련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한대련 내부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대련 :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략만 알고 있다. 한대련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의 입장은 새내기 콘서트가 학내에서 진행되냐 마냐에 대해 학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부분, 학내에 반발이 많은데 진행된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다.

생명대 : 계속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렸고 그점에 대해 비판을 했고, 국제관 앞에서 많은 수의 중앙운영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1

총 : 한대련 탈퇴가 아무 문제 없이 튀어나온 공약이 아니라 한대련 소속의 총학생회가 학내에서 많은 갈등과 불만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나왔던 공약이다. 만약 이렇게 탈퇴를 안하게 되

면 다음에 한대련 활동을 하고 싶은 총학이 생겼을 경우 가입에 대해 아무런 과정없이 활동을 하게 된다.

국제학부 : 가입되어있지 않는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

한대련 :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단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으면 최대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총 : 한대련 내부에서는 작년 고려대 총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적인 반성이 있었나 특히 이번에 여러 대학 선거에서 한대련 소속의 선본이 낙선했는데 자성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대련 : 한대련 학생회 선거에서 예상보다 성적이 안좋았다. 작년에 한대련이 다수의 대학생, 국민들, 범국민적인 참여로 인해 실제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성과. 박원순 시장의 당선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촛불집회등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반값등록금의 의미, 고민과 실천, 학우들속으로 파고드는 활동, 내부의 소통과 운동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새내기콘서트의 경우 반값등록금을 이슈로 내세우기전에 있었던 활동이고, 새내기콘서트의 반대 이유는 궁금하다. 당시에 잘하겠다는 의지에서 꼭 중앙광장에서 해야한다는 문제가 컸다고 생각한다. 새내기콘서트를 여러단위에서 같이 했으면 활발하게 진행하였을텐데,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잘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사업자체를 잘하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학생회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슈를 학우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중앙광장을 추진했던건 과했다고 생각한다.

잠시 휴식

총 : 총학생회가 작년 선거때 한대련 탈퇴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고, 한대련 탈퇴를 학생들의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이번 기회에 진행하게되었다. 다음주 홍보기간에 한대련 탈퇴 찬성과 반대측에서 활발하게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 금요일에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다다음주에 정책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대련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자리를 통해 한대련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법 : 이 자리뿐만 아니라 토론회나 전학대회에서도 한대련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문 : 한대련 가입 방식이 궁금하고, 비활동단위와 탈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한대련 : 한대련은 가입한다고 당장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 대학생 연대 조직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의가 불편한 점이 총학생회가 한대련 탈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탈퇴를 해도 연대를 같이 하겠다고 할 말이 없다. 이 자리가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온자리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 한대련 가입은 해당단위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의결만 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대련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탈퇴도 마찬가지로 가입과 비슷한 권위의 의결 기구에서 진행되면 가능하다.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작년 총학생회가 고려대학교 학생을 위한 총학생회인가 한대련을 위한 총학생회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들었다. 우선 총학생회가 탈퇴를 공약을 걸었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고민이 되는 지점은 한대련의 이익과 고대 학우들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총학생회가 작년 총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탈퇴가 아니라, 한대련 활동이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대련의 구성단위로서 한대련이 변화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이 자리는 준비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린다음에 주중에 총회장님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토론회와 전학대회 자리에 참가하고 싶다. 우선 질문 있으신 분의 질문을 받겠다.

미디어 : 작년 총학의 잘못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연결고리가 한대련에 있기 때문에 탈퇴를 준비 했었는데 작년의 문제가 한대련 활동보다는 작년 총학의 소통문제라는 의문점이 있다. 총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총 : 학우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한 부분은 상위단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탈퇴를 진행한 부분은 다음에 한대련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총학이 있으면 가입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한다. 09년 가입부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다.

정경대 : 작년 한대련 가입이 학우들의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공약에 한대련 활동을 걸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장선출 전학대회에서도 의장은 포기하고 한대련 활동만 하라고 결정했다.

한대련 : 작년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에 고대총학의 반값등록금 활동이 없었으면 올해 전국전인 인하가 가능했을까 올해 인하는 한대련의 활동을 통해서 이뤄낸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총학이 학우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한대련 탈퇴가 작년 총학의 심판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은 지금의 쟁점은 한대련 활동이 고대학생들의 이익이 되는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총 : 제 생각은 작년 총학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한대련 자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해달라. 그리고 한대련은 왜 1년단위로 가입이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1년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면 지금의 상황이 없을 것이다.

한대련 : 한대련에 3년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입단위에서 삭제되는 것은 있다. 정확히는 회칙을 개정 중에 있다. 총회장님의 문제제기가 맞다.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고 명부에만 있는 단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대련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1년단위가 힘든 점은 한대련 활동을 진행을 하고 가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그러기엔 1년이라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매년 가입 여부를 논의를 한다면 한대련 구성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다.

총 : 총학생회가 임기가 1년인데 3년정도로 잡는 것은 너무 한대련에 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한대련에 가입한지 4년째이다. 그래서 이번기회가 재심의에 대해 묻는다고 생각해달라.

생명대 : 이번 통진당 사태에 한대련 입장을 듣고 싶다.

한대련 : 명백한 왜곡보도이다. 청년국회의원 선출에 통진당에서 한대련에 제의를 해왔다. 청년비례대표를 함께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한대련의장도 공동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한대련 의장은 그 폭력사태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대련 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폭력사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선동하였다는 등 왜곡보도가 있었다.

생명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가자고 했다고 들었다.

한대련 : 북이 한국 사회에서 주적이기도 하지만 주요한 남북의 선언에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대련의 성향이 남북의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 조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허당했다.

생명대 : 연평도 사태는 협약을 깬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한대련: 성명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생명대 : 건국대 문과대 학생 회장이 한대련 소속이라고 기사를 보았다.

한대련 : 건국대 문과대는 한대련 소속이 아니다.

생명대 : cnp, 길벗투어와 한대련과 관련이 없는가?

한대련 : 대형무대에 관련하여 계약한 적이 있다.

총 :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 마무리 발언을 듣겠다.

한대련 : 저는 올해 많은 희망을 가지고 2012년을 살고 있다. 올해가 대학생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해가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에서 2030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장 활발히 하는 곳이 한대련이라고 생각한다. 한대련 활동으로 인해 청년 대표도 뽑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한대련이 만들어놓은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적 관심을 한대련이 만들었는데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반값등록금을 이뤄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것이 학우들의 이익을 대변할수 있는 것인가,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활발하게 이끌어 낼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려대가 한대련의 탈퇴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 아니라 한대련에게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번주동안 홍보와 논의 과정에서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한대련 집행위원장 퇴장

이과대 : 이과대 학생회 의견은 총학생회 공약을 지지받고 이행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급한 감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탈퇴를 진행하게 되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총투표의 경우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하나 정책투표의 경우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다시 한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총투표를 권장한다.

총 :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언론에서 갑자기 진행한 것으로 왜곡보도해서 안타깝다. 그러나 이미 몇 년간 교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1학기중에 공약을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투표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다고 생각하나 정경대와 이과대 학생회장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수렴하여 학우들에게 잘 설명하겠다. 홍보기간 동안 중운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한대련 탈퇴를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존속을 원하는 분도 계신다. 이 자리에서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긴 힘들듯하다. 단위별로 자유롭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미디어 : 일정에 대해 표결과 논의를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총 : 우선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고 가자. 총학의 입장은 정책투표 후 전학대회라고 생각한다. 정책투표도 충분히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딱 10%만 투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활발하게 홍보하면 많은 학우들이 투표를 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 찬반 표결을 진행 한다. 원래 정책투표는 1/6 이상의 연서로 진행되나 표결이 통과되면 1/6이 넘는다고 판단되어 진행하겠다.

성원 확인 (17명 참석)

의결 정족수 9명

안건 :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 진행

찬성 - 7명 반대 - 6 기권 - 4 (재논의)

생명대 : 총투표를 하던 정책투표를 하던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정책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중운위원들이 노력을 하면 투표율이 나올 수 있으나 지난번 무상급식처럼 나쁜투표 거부를 하게 되면 총투표를 진행했을 경우 학우들의 의견이 묵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보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면 잘 치룰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경대 :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투표가 학내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면 전학대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고 정책투표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총투표를 사업 구상으로 인준을 받았는데 성사가 되기 힘들다고 정책투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미디어 : 정책투표를 실시하고 전학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압박이 된다고 정대 회장님이 하셨는데 정대회장님께서서는 정책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학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경대 : 이부분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회장님도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방식이든 학우들의 의견을 물어야겠고 그 방식은 정책투표가 아닌 총투표가 되어야한다. 정경대 내에서 봤을 때 한대련 탈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

미디어 :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전학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2,3주 내에 시기적으로 걱정이 많다. 보안하기 위해 1주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학기내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2학기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의대 : 현재 의대안에서도 한대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국제학부 : 언론 매체나 고파스에만 논란이 활발하지 막상 학생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대 : 투표라는게 시기가 중요한데 6월내에 진행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사이에 활발한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정경대 : 정책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투표가 필요하다고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만 총학생회에서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총 : 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투표를 진행하고 전학대회를 2학기로 넘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경대 : 투표를 진행하기전에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5분간 휴식

총 :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학생위원회에서 오래 기다리셔서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위 : 농활 날짜를 받았는데 너무 급박하게 정해져서 찾아왔다. 매년 성폭력적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책임자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진행해왔고 중운위에 들어와서 홍보를 하고 책임자분들과 연락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만약 농활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진행할 대표자들을 구하고 있다.

이과대 : 따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정책국장님께서 농주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여위 : 고려해보겠다. 단과대 말고도 동아리별로 가는 단위가 있어서 따로 교육을 진행하니 관심있는 단위에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국제학부 : 개별적으로 가는 단위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위 :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총 : 계속 논의 진행하겠다. 안건이 나온 것이 정책투표는 1학기에 진행하고 2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하자. 그렇게 되면 정책투표를 미룰 수 있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만큼은 총학생회가 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 열심히 할 예정

총 : 2학기에는 회칙개정등 안건이 많고 차기 학생회를 구성하느라 기층 학생회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제1공약이 왜 이리 늦어지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교육투쟁때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는 입장에서 미루게 되었다.

정경대 : 총학에서 진행할 많은 공약들이 있다. 등심위 재개최도 있고, 이사회 문제도 이사장만 퇴진했지 계속되는 비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힘을 정책투표에 쏟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과대 : 의견 수렴을 온라인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운위와 기층학생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과대 : 정책투표나 총투표가 총회장님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총 : 가능하나 그것은 편법이다. 나는 중운위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싶다.

표결 찬성 -4 반대 -8 기권-5

총 : 기권하신 분들은 자신의 의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 :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권하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믿으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대 : 2학기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면 정책투표도 찬성합니다.

총 : 2학기 초에는 고연전과 전학대회 준비로 힘들고 10월에는 차기 선거를 앞두고 예비 선거 양상을 띠 수 있어서 문제다. 1학기내에 책임지고 홍보를 하겠다.

정경대 : 총학생회가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해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총학생회가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면 한대련 탈퇴의 홍보만 될 것이다.

의대 : 한쪽 입장만 듣고 이슈화가 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

총 : 이런 분위기가 몇 년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제 : 그건 총회장님이 학교를 오래 다니고 학생회에 계시느라 그런듯하다.

정경대 : 한대련 투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총학에서 열심히 홍보한다고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한듯하다. 그리고 가입이 09년도에 진행됐는데 현재 중운위만 해도 대부분 10학번이라 그 과정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총 : 반대나 기권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대 : 총회장님 권한으로 긴급으로 총투표를 진행하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에 맞게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총 : 저는 작년 총학처럼 하기는 싫다. 그건 회칙을 악용한 것.

총학 기획국장 : 총투표의 경우 사실상 총학 선거기간에 4팀의 20명씩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겨우 50%가 넘었는데 총학 집행부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3,40% 학생들이 투표를 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폐기하게 되면 그 학생들의 의견도 무시되는 것이다.

문대 : 총투표의 경우는 한명한명 만나지 못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정책투표보다는 총투표가 더 효율적이다. 총투표가 힘든 것은 다들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 했으면 좋겠다.

총 : 10년 소통시대 탄핵투표의 경우를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분노했으나 막상 총투표를 진행해보니 30%의 투표율이 나왔다. 제 생각엔 총투표보다는 정책투표가 맞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정책투표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 절차상에 큰 하자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1학기내에 총투표를 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시기에 대한 논의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총학 기획국장 : 총투표와 정책투표의 차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에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적은 투표율에 학생들의 의견을 공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 같다. 총투표의 경우는 현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2주사이에 총투표는 가능하고 정

책투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범대 : 6월중에 ,투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범대 단운위와 집행부내에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2학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오히려 고연전이 홍보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

정통대 :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거기간처럼 준비가 되어잇는가

총 : 홍보물과 대자보는 준비했고 이공계에는 부총, 인문계에는 총회장이 피켓을 들고 서잇을 것이다.

문대 : 아무리 2주간의 시간동안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총투표를 주장하였다.

총학 기획국장 : 요즘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50%란 벽이 너무 높아서 드린 제안이지만 문짱님 말씀엔 동의를 한다.

총 : 정책투표를 진행하면 새내기보다는 작년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 한대련의 폐해를 겪은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투표가 맞다고 생각한다.

정경대 : 이런 점이 작년 총학을 심판으로 이어지는 듯 하다.

총 : 심판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전 총학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한대련’에 대한 심판이다. 한대련이 못했기 때문에 만약 다음 학생회가 한대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하는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한 대련 탈퇴다.

국제 : 토론회를 진행하면 너무 일방적인 토론회로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총 : 원래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려고 패널을 정했고, 사범대 회장님께서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셔서 자유로운 장으로 진행하려한다.

정경대 : 만약 정책투표가 3.40%가 나왔고 전학대회에서 통과된다면, 이후에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총 : 회칙에 정책투표가 왜 있겠나. 10%의 의견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칙에 없었을 것이다.

법대 : 총학의 업무능력을 믿지만 2학기에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문대 : 아무리 정책투표를 진행하고 전학대회를 진행한다지만, 2주간의 시간동안에 처음에 총투표로 공약을 걸고 정책투표로 바꿨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듯하다. 어차피 많은 노력을 할 것 이면 총투표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이과대 : 총투표의 경우 이과대는 50% 확신합니다. 어차피 2주를 홍보를 하던지 3주를 홍보 를 하던지 관심이 없는 분들은 계속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2주라는 홍보기간은 괜찮으 나, 총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깔끔하게 결론이 날것이다.

미디어 : 10%라는 비율이 만족할만한 비율이 아니고 총회장님이 고파스에서 여론을 많이 들 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총 : 고파스의 의견이 전부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10분 휴식 후 표결

안건 6월 2주 홍보 후 정책투표 진행
찬성 - 5 반대 - 9 기권 - 3 (부결)

안건 6월 총투표
찬성 - 4 반대 - 11 기권 - 2 (부결)
안건 2학기 정책투표
찬성 - 8 반대 - 4 기권 - 5 (재논의)

자전 : 제 생각엔 전학대회로만 진행을 해도 될 부분인데 명분을 강화 한다는 입장에서 동의 를한다.

미디어 : 정책투표가 전학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가 되지만 6월과 방학중에 많 은 논의와 홍보를 거친 후 진행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 정책투표가 많이 투표해도 3,40%의 의견일텐데 전체 학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 : 전학대회 결과는 어떤가? 실제로 시간강사 연대 폐지안건은 과반이 찬성했으나 그에 못 지않은 반대표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하고 그것이 대의체계다. 그러나 정책투표는 그러한 대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총학생회칙상의 훌륭한 장치다. 우리 선배들 이 정책투표라는 회칙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는게 좋겠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정당한 방 법인 것이다.

자전 : 회칙에 총투표와 정책투표가 있는 것을 보면 총투표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정 도로 큰 사항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보고 정책투표의 경우는 학생사회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의 견을 묻기 위해서 있는 장치라고 보기에 정책투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법대 : 총투표의 경우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왜 개봉하기 힘든 총투표로 진행하냐는 목소리도 나올수 있다.

미디어 : 정책투표가 그 자체로 의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투표의 결과가 꼭 전학대회에서 통과된다고 생각 할 순 없다.

문대 : 총투표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2학기에 진행하면 준비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 : 시기가 많이 주어진다고 투표율을 보장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 : 한대련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탈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는 단체에 왜 가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한대련 탈퇴의 근거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총투표의 투표율 저조는 한대련 탈퇴를 더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투표를 진행하려면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투표가 맞다고 본다.

그러면 한대련 가입 유지 (재신임)에 대한 총투표는 어떤가? 만약 투표율이 나와서 찬성을 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하고 투표율이 저조해서 무산되면 결국 재신임 실패, 즉 탈퇴를 하는 것이다. (웃음)

법대 : 총투표가 성사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총투표 자체를 반대를 한다.

문 : 그러면 다시 논의해보야한다.

미디어 : 재신임을 묻는건지, 탈퇴를 묻는건지는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더 낫다고 본다.

총 : '한대련 탈퇴 투표'라는 명칭이 한대련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니 재신임 투표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니 추후 논의하자.

2학기 정책투표 표결

찬성 - 13 반대 - 3 기권 -1 (가결)

총 : 오늘 회의는 이정도로 하고 예정대로 토론회는 진행하겠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니 참여하고 싶은 중운위원들은 이야기해달라.